

현목의 세상읽기



독자들이 이 글을 읽을 때쯤이면 한창 세계배추구시합으로 공동개최국인 한국과 일본은 물론 전세계가 열광하고 있을 것이다. 본선을 앞둔 어제, 그러니까 5월 26일 저녁 한국과 불란서의 평가전 양상을 볼 때 한국편이 상당한 실력을 갖추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어 지금까지 역대 세계배추구시합 출전 사상 가장 좋은 성적을 올릴 것으로 거의 확실시되고 있다. 어쩌면 세계가 놀랄 정도로 더 좋은 성적도 내지 않을까 싶다. 아무려나, 추구든 뛰든 간에 서로 각축을 다투는 시합장에서 승리한다는 것은 참으로 좋은 일이다. 이왕이면 우리 한국편이 멋진 기술과 조직력으로 매번 시합마다 승리하였으면 하는 바램이다.

한편 이번 세계배추구시합 기간에는 세계인은 무관심하겠지만 우리네로서는 무엇보다 중요한 정치 마당이 있다. 지방자치체의 단체장을 비롯하여 의회의원을 뽑는 선거가 그것인데, 자칫 세계배추구시합의 열기에 가려 정작 우리에게 살림하고는 가장 밀접한 선거마당이 소홀히 될까 우려된다. 기특이나 지난 80년대 중 후반기에 기점으로 대중의 투표참여가 떨어지고 근래에 이르러서는 그 투표율이 더욱 떨어지는 경향이 있어 이른바 남한사회에 있어 대의제 민주주의가 갖는 의미가 점차 희석되고 있는 현실이다.

2002년 6월 한국 사회주의 시험

대중의 정치적 무관심을 부채질하는 책임은 무엇보다 정치인들에게 있을 것이다. 그네들이 벌이는 추잡스러운 정치놀음에 대중은 식상해 하고 있으며 그러한 의사표시가 소극적인 행위로 나타나는 것이 정치적 무관심일 것이다. 게다가 운동경기나 오락, 전자놀이가 주는 재미가 더욱 솔솔하게 정치에 대한 흥미는 반감될 수밖에 없다. 정치가 여타의 유희처럼 재미나 흥미를 끌어안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하여 박진감도 없고 그리하여 대중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은 결코 좋은 현상은 아니다.

그런데 솔직히 따져보면 정치인들은 의도적으로 대중이 정치에 대해 무관심하도록 만들고 있다고 하여도 과언은 아니다. 정치에 정치하는 사람들만의 판이 되는 것이 기존의 정치인, 또는 그 기존 정치권에 들어가 입명을 하려는 사람들에게는 그러한 상황이 더 좋은 조건이 될 것임에 틀림없다. 그들의 기득권을 유지하려면 '정치시장'의 진입 장벽이 높을수록 안정적이다.

남한의 정치는 태생적으로 몇가지 한계를 안고 있다. 해방된 직후 철저히 차단했어야 할 친일세력이 미군정하에서 특혜를 받던가,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남한의 대중을 정신적 장애로 만든 반공이념, 오로지 경제성장 제일주의로 사회를 경직화한 독재정권 따위가 속한다. 하여 한국정치는 근본적으로 폐쇄성을 안고 있었다. 이런 와중에서 그나마 대중이 정치적인 관심을 갖는 것은 폭압적 독재정권으로부터 벗어나 시민적 권리를 누릴 수 있는 '민주화'에 대한 기대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한국 정치사의 중요한 고비에서 대중은 엄청나게 높은 정치적 열망을 보였다.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오른쪽과 왼쪽의 날개에서 오른쪽만

이 허용된 정치에 국한된 것이다. 70년대와 80년대 이른바 '민주화운동세력' 가운데 일부는 자신들을 한때 '용공세력'으로 규정하였던 권력에 편입되어 그 정권을 유지하는 한 부분이 되었는가 하면 정권교체 이후 민주주의에 대한 천박한 해석으로 대중을 기만하고 있다. 정치시장의 높은 장벽을 뚫고 진입에 성공한 이후 자신들 또한 적당하게 기득권을 향유하는 것이다. 그러나 남한의 정치는 늘 그 밤에 그 나물인 것처럼 보이기 마련이다. 뭔가 사람은 바뀌긴 하였는데 기이하리만치 예나 지금이나 판에 박힌 놀음만 계속되는 것은 그런 까닭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 6월 13일 치뤄지는 지자체 선거에는 남한의 정치에 새로운 실험이 시도되고 있다. 반공이념으로 중무장한 사회분위기에 사회주의를 실현하려고 결성된 사회당이 전면으로 나섰다. 예전에도 민주진영의 대통령후보가 나온 적도 있고 또 진보진영을 표방하는 정당 또는 후보가 선거구면에 등장한 바 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 양상이 다르다. 민주노동당과 함께 전국에 주요 거점에 자신들의 후보를 대거 출마시켰다. 서울시장 후보에는 사회당의 대표 원용수씨가, 민노당에서는 이문용씨가 출마하였고 인천에는 사회당 소속의 김영구 인하여 교수가 출마하는 등 전국 광역단체장 및 지자체장과 의원에 출마하였다. 이미 널리 알려진 민주노동

당과 더불어 진보 정당으로서의 자기 모습을 대중에게 보이고 그들의 선택으로 남한사회에 사회주의를 널리 전파하겠다는 것이다.

며칠 전 문화방송의 100분토론프로그램에는 이번 서울시장 후보로 나선 5명을 전부 초청하여 각자의 견해를 밝혔다. 물론 사회당 후보도 나왔다. 지금껏 관례로, 아니 선거법에 근거한 것이지만, 국회의 교섭단체 또는 그에 준하는 정당의 후보만 방송에 출연시켜 편파적인 선거운동이라는 비판이 있는데, 문화방송은 그런 점에서 진일보한 태도를 보여주었다. 당연히 시정해야 할 일인데도 기득권을 어떻게든 고수하려는 정치인들의 속셈에서 여전히 고쳐지지 않고 있는 사안이기도 하다.

어쨌든 문화방송에 출연한 서울시장 후보 가운데 사회당의 원용수후보는 첫 인사말에서 거침없이 '나는 사회주의자입니다.'라고 내뱉었다. 글썽 아직 국가보안법이 발췌해 살아있는데도 이런 것이 용인되는 것 보면 남한사회가 그만큼 나아졌다는 반증으로 받아들여도 될 것 같다. 모르긴 몰라도 방송에 출연하여 이렇게 말한 사람은 그가 처음일 것이다.

80년대 후반부터 좌파진영의 정치적 실험은 그간 몇 번 있었으나 큰 결실으로는 발전하지 못하였다. 자신들의 삶이 바람에 풀린 민중으로부터도 큰 지지를 이끌어내지 못한 결과였다. 아직도 강하게 대중의 의식 속에 작용하고 있는 반공이념의 반향도 작용하였다. 이번 2002년 6월의 지방선거는 그간의 정치적 실험에 보태어 대중 앞에 당당히 나선 사회주의자들에 대한 대중의 열정이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에 자못 관심이 간다. 특히 이번 선거는 사상 처음으로 정당투표제가 시행된다. 후보와는 별개로 선호하는 정당에도 투표를 하는 것이다. 정치적 기득권자들은 이번 선거가 연말의 대통령선거를 겨냥한 발판일지 모르지만 역사와 사회발전에서 자신을 나투려는 이들에게는 반공이념으로 중무장한 우리 사회에 대한 사상적 도전의 힘찬 발걸음이다.

원정대성사와 함께하는 VISUAL밀고

~반야심경편 제9화~ 글:그림/정수일

재미있는 얘기 라구요?
어? 방금까지 졸던 닭은 어디갔지?
"오온"에 대해 얘기해 드렸고 "공"에 대해 설명 하려고 했는데...
그새 졸았군, 으~ 창피해.

하하하... 많이 졸리신 모양이군요? 떡잎술 각자님. 재미 있는 얘기를 해드릴까요?
그럼, 내가 조는것도 공이란 말이였다...
"공"을 이해하기 위해선 "인연"의 뜻을 잘 알아야 합니다.
그림것도 모를까봐..
하하하

불교에서 "공(空)"은 아무것도 없다는 뜻의 "무(無)"가 아니라 인연으로부터 생겨난 모든법, 자연현상을 말합니다.
그럼, 내가 조는것도 공이란 말이였다...
"공"을 이해하기 위해선 "인연"의 뜻을 잘 알아야 합니다.

그럼, 어디 설명해 주실까요?
오다 가다 만난것을 말하던가?
인연
"인(因)"이란 결과를 낳게하는 직접적인 힘이며 "연(緣)"이란 인을 도와서 결과를 낳게 하는 간접적인 힘입니다.
아... 또 닭이 되야지.
딱! 그냥, 삼계탕을...

여기 계란이 한개 있다고 합니다.
내 종족이 아닌가?
이런 경우 이 계란이 인이죠.
계란이 닭이 되기 위해선 어미가 적당한 체온으로 일정한 기간동안 품어주어야 병아리로 태어날 수 있죠. 계란이 "인"이라면 적당한 온도와 일정한 기간은 "연"이 되는 거랍니다.

앞전에 "오온(색, 수, 상, 행, 식)"이란 다섯가지의 동적인 모임이라고 했는데
"오온"에 의해 생긴 사물은 고정불변하지 않고 항상 변화하고 움직이는 모임이란 뜻이죠.
오온개공이라.. 아이고 어려워...
"공"이란 보이지 않아도 존재를 초월하여 온 우주에 존재하는 힘입니다.
"공"에 대해선 계속 얘기 하도록 하죠.

즉, 계란이 부화하여 병아리가 되고 점점 자라 어미닭이 되며... 또 삼계탕이 되는 것처럼....

격월간 참여불교 5·6월호 발행

Engaged Buddhism

"나는 나의 시간과 정력과 물질을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사람들과 나눔으로써 너그러움을 실천하기로 결심한다... 나는 다른 사람들의 재산을 존중한다. 그러나 그들이 인간들의 고통이나 지상에 있는 동·식물들의 고통을 이용하여 이득을 취하는 일을 허용하지 않는다."
— 틱낫한, '마음다함의 다섯가지 수련법' 중에서 —

2002년 5·6월호(통권7호)

- 특집 1 한국불교의 수행론과 뒤집어보기
- 특집 2 '복'을 빌면 '복'은 오는가
기도에 관한 의식조사
- 특집 3 쟁점! 석굴암 모형관 건립문제
- 만남 "결집을 위한 담론 형성이 필요하다"/정념스님
- 특별기고 본당 사목의 새로운 모델

참여불교재가연대 Buddhist Solidarity for Reform
H:www.buddha21.org E:buddha21@budgate.net 우:110-340 서울시 종로구 익선동 30-6 신학역 205호 T:745-7799

한국 최초로 발굴한 비구니 큰스님들의 행장

깨달음의 꽃 1, 2

저자 하춘생
종교대 불교학과 졸업, 불교대학원 불교학과 석사 수료, 한국대학교 사회복지학 석사, 유진대학교 사회복지학 석사, 유진대학교 사회복지학 석사, 유진대학교 사회복지학 석사, 유진대학교 사회복지학 석사

부처님의 말씀 한 마디를 세상의 미명에 젖어 있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 향하의 모래알들보다 많은 공덕을 쌓는 것이라고 했다. 용맹정진을 통해 얻어진 값진 깨달음의 보배를 혼자서 간직하고 있는 것은 죄일 수 있다. 하춘생 씨가 이번에 내놓는 책 속에 들어있는 비구니 스님들은 모두 그러한 꽃피우기를 하다가 영원의 시간 속으로 잠적한 고귀한 꽃들이다. —한승원(소설가)

이 책은 끝없는 인고의 세월 속에서 묵묵히 수행에 전념한 비구니 큰스님들의 삶을 통해 부처님과 역대 조사의 정신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으며, 그 원력을 통한 중생제도의 대비심이 잘 나타나 있다.
—명성스님(문운사 승가대학장)

제권 범위, 성문, 만성, 일월, 본공, 월해, 선경, 대영, 광호, 문간, 금릉, 벽두, 수옥, 선단, 금단, 범일, 문영, 제천, 정행, 인후, 혜운, 수인, 진도, 운호, 괴사, 장일, 지천, 도운, 천일, 색운, 창비, 만선, 도원, 스님, 등 총 서른 두 분 비구니 큰스님들의 행장 수록

전국 유명서점 정찬리 판매중! 전화 (02)730-8976 돌심거리

경인교구 합창단을 찾아서

사원탐방은 중도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 스승님, 신도분들의 따뜻한 이야기, 신앙체험담, 사원의 신도회 자랑 등 작고 아름다운 사연들을 들려주시시오. 이러한 사연들이 다른 사원 신도 여러분들과 교류의 장이 되고자 합니다. 전화 : (02)552-1080 팩스 : (02)552-1082

목소리에 부처님의 법을 듣고

가릉빈가 경인교구 합창단의 화음은 진언의 향기가 솔솔~

어둠은 한순간 그대로가 빛이라네
바른 생각 바른 말 바른 행동이
무명을 거두고 우주를 밝히고
이제는 가슴깊이 깨달을 수 있대네
정진하세 정진하세 물러남이 없는 정진
우리도 부처님 같이 우리도 부처님 같이

매주 수요일이면 아름다운 화음의 노래가 총지사 법당에 가득하다. 마치 아름다운 소리로 진언을 전하는 묘음조(妙音鳥) 같이 무명 세계를 밝히는 연등처럼...

난 22일 총지사 법당안에서 맑은 부처님의 노래가 흘러나온다. 때론 투박하고, 때론 아름다운 하모니가 부처님의 법음을 전하듯 듣는 이들에게 환희심을 심어준다.

경인교구 합창단(단장 최채숙·불명: 원각화·실지사 회장) 합창연습이 한창이다. 30여명의 단원들이 모여 각각의 독특한 목소리를 다듬어 화합과 조화를 이루는 커다란 모음을 만들어 내고 있다.

우리는 주위에서 우리에게 도움을 주고 있는 흔한 물건에 대



1977년 경인교구 합창단 창단하여 부산 정각사에서 최초로 교도들 앞에서 음성공양을 하고 있다.

한 고마움을 잊고 살아가고 있다. 예를 들어 전기에 대한 고마움이나, 공기에 대한 고마움, 혹은 물에 대한 고마움을 잊고 살아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이 하루라도 없으면 인간이 삶을 영위할 수 없을 것이다. 아이러니 하게도 가장 흔하지만 가장 고맙고 유익한 물질들...

공기가 희박한 곳에서 공기의 고마움을 뼈저리게 느끼며, 타는 목마름이 가득한 자에게는 한모금의 물은 감로수와 같이 생명을 살리는 고귀한 물건이 된다.

경인교구 합창단이 마치 물과 공기와 같은 존재이다. 특별히 나타낼 것이 없거나 조용히 묵묵히 자리를 지키면서 모든 교도들에게 감로수로 때로는 청량한 공기로 우리들의 가슴을 시원하게 해주곤 한다.

불교에서는 음성공양을 하는 이들을 흔히 가릉빈가라 한다. 아름다운 소리로 불법을 설하는 상상의 새를 말하며, 극락정토의 설산(雪山)에 살며 머리와 상반신은 사람의 모양이고, 하반신과 날개, 발, 꼬리는 새의 모습을 하고 있으며 아름다운 목소리와 춤으로 사람들 즐겁게 하는 상상의 동물이다.



고운 자태만큼이나 아름다운 목소리로 단합을 과시하고 있다. 종단의 애경사에 발벗고 나서는 합창단의 모습에서 보살의 정신을 배워본다.

경인교구 합창단을 가릉빈가라 칭한다 해도 전혀 손색이 없을 것이다. 종단의 주요행사와 애사 경사에 빠짐없이 참석하여 아름다운 목소리와 화음으로 모든 교도들을 즐겁게 하고 부처님의 진리를 아름다운 화음으로 표현하기에 그렇게 정해도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경인교구 합창단은 불교총지종과 역사를 함께 하고 있다. 원정대성사님의 요구에 의해 1977년 실지사에서 창립되어 종단의 큰 관심과 호응으로 한때는 종단의 가장 큰 보살들의 모임으로 자리를 잡아갔으나 이후 종단의 관심과 후원이 떨어지자 그 열기가 급속히 식어갔다.

이후 10대 통리원장 이었던 법공정사(現 성화사 주교)님과 11

**부처님 부처님 거룩하신 부처님
저 이제 발원하오니
이 원을 들으소서 나무아미타불
중생의 기원을 들어주소서
오마니반메움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최채숙 단장(가운데), 지휘자 박묘정(좌측), 반주자 조경숙(우측) 경인교구 합창단을 이끌고 있는 3인방

대 통리원장 총지화 전수님의 노력으로 1995년에 재창단 되었다.

종단의 관심과 노력으로 최채숙 보살님(실지사)을 단장으로 지휘자 박묘정 보살님(총지사), 반주자 조경숙보살님(총지사), 재정총무 보덕재보살(밀인사), 총무 노진숙보살님(정혜서원당)을 주축으로 단원 30여명이 금강같은 단결력으로 종단발전에 초석이 되고 있다.

그리고 합창단 출신의 스승님도 배출했다는 것으로 보아 합창단의 신심을 가히 짐작할 수 있다. 바로 묘심해전수님이 경인교구 합창단출신임을 강조하신다.

"합창단은 단순히 음을 맞추어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지극한 마음으로 정성스럽게 불공하는 신심이 깃들여져야 비로소 사람들에게 감명을 줄 수 있는 화음이 됩니다"고 최채숙 단장님은 강조하신다.

가장 불교적일 때 노래가 잘됩니다. 30여명의 단원 제 각각 음색과 음정과 목소리의 색깔이 있어 화합하지 않고 남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면 합창은 개진 화음과 노래로 나타납니다.

불교의 가장 중요한 가르침중 하나인 화합의 정신이 합창의 세계에서 나타납니다. 서로 서로를 배려하고 이해하고 상호 존중하는 서로 하나로 되려는 작은 마음의 씬씀이가 하나의 커다란



지난 전방철성부대에서 위문공연후 근악대와 함께 촬영

화음의 물결기로 나타내게 됩니다. 단장님의 불교와 합창에 대한 일장 연설이 이어진다. 그리고 그 설명은 아주 쉽게 가슴에 와 닿는다.

그리고 경인교구 합창단의 앞으로 계획과 커다란 서원으로 끝을 맺었다.

앞으로 경인교구 합창단 단원배가운동을 벌여 지금의 합창단을 3배의 숫자로 늘려서 부처님오신날 불국 연합합창단에도 참석하고 문화행사에 합창단 참여와 여력이 되면 경인교구 합창단을 악발표회를 세종문화회관에서 봉행하는 서원을 가지고 차근차근

**배달겨레 심쉬는 조용한 나라
부처님 금빛얼굴 가득히 웃음지어
중생의 외로움 모두 다 씻어주는
천옥백년 길고 긴 연꽃향기 누리 가득히
나라와 겨레를 복되게 하리**

준비를 하고 있다.

또한 경인교구 합창단이 지금 이 자리까지 설 수 있게 하였던 종단의 배려와 도움에 감사하며 특히 법공정사, 총지화 전수, 그리고 실무적으로 보살과 주신 인선정사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이야기도 잊지 않았다.

그리고 이제 모든 교도들은 경인교구 합창단이 하루하루 발전하는 모습을 지켜볼 수 있는 즐거움이 생겼다.

아스라이 멀고 먼 나라



지난 총지사 본존 봉안불사에 참석하여 찬불가 합창을 하고 있다.

불교 총지종 경인교구 합창단을 모집합니다



노래를 통해서 부처님의 진리를 공양하실
진언행자들의 많은 동참과 관심바랍니다

합창단원 모집

- ◇모집인원 : 〇〇명
- ◇모집기간 : 총기31년 6월30일까지
- ◇신청자격 : 음성공양에 관심있는 진언행자
- ◇문의 : (02)983-1492(단장 : 최채숙)

불교 총지종 경인교구 합창단

티베트의 영적 지도자 달라이 라마와 미국의 저명한 정신과 의사 허워드 커틀러가 묻는다.

“당신은 행복한가?”



우리는 행복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

달라이 라마의 행복론

살아가면서 마음속에 떠오르는 질문들을 달라이 라마와 마주앉아서 던져본다면 어떤 해답을 얻을 수 있을까?

달라이 라마·허워드 커틀러 | 류시화 옮김 | 351쪽 | 값 9,500원



14대 달라이 라마, 텐진 기보
그를 이해하는 것이 왜인가? 그는 누구인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는 자기 주위에 모든 사람을 인도하고 있다. 그는 어떻게 영적 지도자
달라이 라마에, 몇 차례 티베트 망명사절이 되어왔다. 왜 그는 그토록 인간이 것인가? 불교를 초월한 관세음보살로 가장 존경받는 인물로 있다.
그와 단 한 번의 만남이 있다. 불교는 정말 더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